

2017년, 죽도문제연구회의 독도영유권 날조와 선동 방식*

-한국 함평중학교 학생이 보낸 편지를 중심으로-

최 장 근**

(e-mail : nihonbu@daegu.ac.kr)

<목 차>

- | | |
|--|------------------------|
| 1. 들어가면서 | 4. 죽도문제연구회의 시모조 견해에 대해 |
| 2. 제4기 죽도문제연구회의 발족 경위 | 5. 한국학생의 편지에 대한 소셜미디어의 |
| 3. 한국 학생들이 보낸 「죽도 교육비판
편지」의 일본언론 보도 | 반응 |
| | 6. 맺으면서 |

키워드: 咸平中學校(Hampyeong Middle School), 第4期竹島問題研究會(the 4th Takeshima Issue Study Group), 下條正男(Shimozo Masao), 竹島教育の批判手紙(Takeshima Education Critical Letter), 獨島(Dokdo)

1. 들어가면서

아베정권에 들어와서 일본정부는 “한국이 일본영토인 죽도를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초, 중, 고교에 의무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시마네현은 죽도문제연구회 4기를 발족시켰다. 그리고 시마네현은 현의 각 중학교에 죽도문제에 대한 영유권 교육 강화를 하달했다. 게다가 함평중학교 학생들이 보낸 편지가 일본 전역에 논란이 되었다. 시마네현에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는 한국의 전남 함평중학교 역사탐구동아리의 3학년 학생 3명이 시마네현 내의 56개 중학교에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지도하는 사회과 지

* 2017년 대구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금으로 작성된 논문임.

** 대구대학교 일본어일본학과 교수, 일본정치 전공.

리고사에게 이를 비난하는 편지를 보내었기 때문이다. 6월 9일 시마네현의 지방신문들이 이 사실을 보도했고, 일본에서 보도된 후 6월 14일 한국의 한 언론사¹⁾가 보도함으로써 이 소식이 한국사회에도 알려졌다.

연구방법으로써는 우선 같은 시기에 발족된 제4기 죽도문제연구회의 성격을 분석함으로써 함평중학교 학생들이 보낸 편지와의 관련성을 검토한다. 둘째, 함평중학교 학생들의 편지가 언론에 보도된 경위를 고찰한다. 셋째, 함평중학교 학생들의 편지에 대한 죽도문제연구회의 좌장격인 시모조 마사오를 비롯한 회원들의 인식을 고찰한다. 넷째로 함평중학교 학생들의 편지에 대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에 대해 고찰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함평중학교 학생들의 편지가 일본 사회에 이슈화된 이유와 그 경로를 규명하고, 제4기 죽도문제연구회가 발족된 것과 함평중학교 학생들의 편지와 관련성을 고찰한 것이다.²⁾

2. 제4기 죽도문제연구회의 발족 경위

2017년 6월 8일 시마네현(총무부 총무과) 죽도대책실은 「제4기 시마네현(島根縣)죽도문제연구회 설치에 관한」³⁾ 제1회 모임을 가졌다. 왜 이 시기에 제4기 죽도문제연구회가 발족되었을까? 예정된 정기적인 발족인가 아니면 상황변화에 따른 대응을 위한 발족인가?⁴⁾

제4기 죽도문제연구회의 「설치목적」에 대해, 「죽도문제에 관해 객관적으로 심도 있게 연구하고 국민 여론을 계발(啓發)하기 위해 제4기 시마네현 죽도문제연구회를 설치한다」⁵⁾라고 했다. 죽도문제연구회의 과제는 2가지로써,

- 1) 「[좋은뉴스] 일본 역사 교사들에게 편지 보낸 중학생들」, 『YTN』, 2017.06.14.
http://www.ytn.co.kr/_ln/0103_201706131551443503(검색일2017.10.05.)
- 2) 제4기 죽도문제연구회의 발족과 함평중학교 학생들이 보낸 편지와의 연관성을 검토한 선행연구는 없다.
- 3) 「第4期島根県竹島問題研究会の設置について」,
<http://www3.pref.shimane.jp/houdou/files/C8ED1D34-A093-4B28-A3C8-900218784472.pdf>
(검색일2017.09.12.)
- 4) 발족시기는 “제1기 : 2005년 6월~2007년 3월, 제2기 : 2009년 10월~2012년 3월, 제3기 : 2012년 10월28일~5월24일” 로 볼 때 발족시기가 정기적인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발족하는 것 같다.
- 5) 전개 글, 「第4期島根県竹島問題研究会の設置について」 참조.

「국민 여론을 계발(啓發)하고」, 「독도문제를 객관적으로 심도 있게 연구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우선 연구위원의 구성을 보면 전문적인 연구자인 교수신분이 몇명 되지 않아서 실제로 객관적 연구가 가능할지는 의문스럽다고 하겠다.

石橋智紀	民間研究者 (江津市)	民間研究者.
伊藤由実子	島根県立松江南高等学校教諭	地歴公民科教育(高等学校)
内田文恵	松江市歴史まちづくり部資料編纂.課主任 編纂官	司書
佐々木茂	松徳学院高等学校教諭	日本近現代史(政治史)・歴史 教育学
下条正男	拓殖大学国際学部教授	日本史
曾田和彦	大田市立第二中学校教頭	社会科教育(中学校)
塚本孝	東海大学法学部教授	国際法
永島広紀	九州大学韓国研究センター教授・副センター長	朝鮮史・日韓関係史・東洋史
中野徹也	関.西.大.学.法.学.部.教授.	国際法
原田環	県立広島大学名誉教授	朝鮮近現代史・近代東アジア 国際関係史
藤井賢二	日本安全保障戦略研究所研究員	近現代日韓関係史
升田優	島根.県.町.会.参.与	行政経験
山崎佳子	民間会社社員	民間研究者
吉田貴弘	海士町立福井小学校校長	社会科教育(小学校)
14名(敬称略.)		

<죽도문제연구회의 구성>6)

위에서 연구위원 총 14명중 연구업적의 유무를 논하지 않더라도 전문연구자인 교수신분은 5명뿐이다. 그 이외 9명은 초중고교 소속 교사 4명, 기타 5명이다. 교수 중에 시모조, 츠카모토, 후지이는 제3기의 죽도문제연구회 회원으로서 독도의 역사를 내셔널리즘적 측면에서 사실을 날조하는 인물들로 이미 정평이 나있다.7) 나가시마, 나카노, 하라다라는 인물은 독도연구가 전무한 인물들이다.

6) 전개 글, 「第4期島根県竹島問題研究会の設置について」 참조.

7) 경상북도독도연구기관통합협의체편(2016) 「시마네현 죽도문제연구회의 독도영유권 조작논리」(20010.12.28~2015.10.09.), pp.1-170. 경상북도 독도연구기관통합협의체(2016) 『일본의 영토침략에 대응하기 위한 독도의 고유영토론』 제이앤씨, pp.1-517. 송병기(1999) 『울릉도와 독도』 단국대학교출판부, pp.1-267. 송병기편(2004) 『독도영유권자료선』 한림대학교아시아문화연구원, pp.1-278. 신용하(2011) 『독도영유권에 대한 일본주장의 비판』 서울대학교출판부, pp. 249-312. 최장근(2005) 『일본의 영토』 백산자료원, pp.41-42.

다음으로 죽도문제연구회의 성격을 살펴보면, 연구회가 제시한 「활동내용」이 「①죽도문제에 관한 객관적인 연구 ②죽도 학습 추진을 위한 검토 ③연구성과 정리와 현(시마네현) 내외에 정보발신 ④죽도문제 계발자료 작성」⁸⁾이라고 되어있다. 즉 죽도문제연구회는 순수한 연구단체가 아니고, 죽도가 일본영토라고 하는 논리 날조, 죽도교육, 연구성과 보급, 자료발간 등 한국영토 독도에 대해 일본영토라고 시마네현 지역을 넘어 모든 일본국민들 더 나아가 국제사회의 여론이 여기에 동조하도록 선동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다.

실제로 시마네현은 제 4기 죽도문제연구회를 설치⁹⁾하고 2017년 6월 11일(일) 회원 14명 전원이 참석¹⁰⁾한 가운데 「제 4기 죽도문제연구회 취지 설명, 좌장과 부좌장 선출, 최근 정세 보고, 의견교환」¹¹⁾ 등을 내용으로 제 1회 연구회를 개최했다.

죽도문제연구회는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실시하고 있다. 「비공개 내용에 관해서는 좌장이 비공개로 했을 경우는 비공개부분에 대해서 언론 보도용으로 브리핑한다」¹²⁾라고 하는 것처럼, 죽도문제연구회의 존재를 알려서 스스로 위상을 높이기 위해 언론을 활용하고 있다.

요컨대, 시마네현은 6월 8일 죽도대책실에서 제1회 모임을 갖게 되었다. 함평중학교 학생들의 편지가 시마네현 56개 중학교에 보내진 것은 6월 8일 이전이었고,¹³⁾ 더 정확하게 말하면 「5월 중순」에 시마네현 각 중학교에 보내졌던 것이다.¹⁴⁾ 따라서 시마네현이 제4기 죽도문제연구회를 발족시키게 된 계기가 바로 한국 함평중학교 학생들로부터 시마네현 56개 중학교에 편지가 도달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한국의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한 학교교육에 대응

8) 「第4期島根県竹島問題研究会(第1回)の開催について」,

http://www3.pref.shimane.jp/houdou/press.asp?pub_year=2017&pub_month=6&pub_day=8&press_cd=DA45C075-2535-4ACC-BBEF-08FE016215BD(검색일2017.09.12.)

9) 전개 글, 「第4期島根県竹島問題研究会(第1回)の開催について」 참조.

10) 상동.

11) 상동.

12) 상동.

13) 한국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중학교 3학년 3명이 시마네현의 「죽도교육 비판 편지」를 가장 먼저 보도한 언론은 2017년 「6월9日」 `시마네현의 산인 중앙신보(山陰中央新報)이었다는 사실은 이미 그 이전에 56개 중학교에 보내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14) 下條正男·拓殖大教授, 「【竹島を考える】韓国中学生が送りつけた‘日本は正しい歴史を教えよ’の手紙透けて見える‘子供の政治利用’‘教育の洗脳’2017.8.4」.

<http://www.sankei.com/west/news/170804/wst1708040002-n1.html>(검색일2017.09.12.)

하기 위해 발족했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56개 중학교에 보내진 편지 내용은 시마네현의 죽도대책실에 보고되었고, 죽도대책실이 제4기 죽도문제연구회를 발족하기로 결정했고, 죽도문제연구회의 좌장격인 시모조 마사오의 주도로 편지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6월 8일 제4기 죽도문제연구회가 발족된 것은 한국 중학생들의 편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고, 편지 내용은 「정보공개조례」에 의거하여 비공개회의에서 결정하여 죽도문제연구회가 발족된 다음날인 6월 9일 언론에 공개되었던 것이다.

3. 한국 학생들이 보낸 「죽도교육 비판 편지」의 일본 언론 보도

한국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중학교 3학년 학생 3명이 시마네현에 보낸 「죽도교육 비판 편지」를 가장 먼저 보도한 언론은 2017년 「6월9日」 시마네현의 산양중앙신보(山陰中央新報)이었고, 이 신문의 보도내용은 같은 날 저녁 NHK 마쓰에(松江)방송국도 뉴스에서 보도했다.¹⁵⁾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은 56개 중학교에서 시마네현에 보고했고,¹⁶⁾ 이 사실을 죽도대책실이 언론에 알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시모조는 죽도교육 비판내용을 「아무런 비판없이 소개했다」라고 언론사를 비판하고 있지만, 언론사의 본분이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것이다. 시모조는 언론사마저 일본의 언론사이기 때문에 죽도가 일본영토라고 설명하여 보도해야한다고 하는 내셔널리즘적 왜곡된 사고를 갖고 있다.

다음날 10일 『아사히신문(朝日新聞)』(시마네[島根] 로컬 면)과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시마네 로컬 면)이 보도했다.¹⁷⁾ 이렇게 하여 이 소식은 한국

15) 下條正男, 2017년06月26日, 「竹島問題を考える : 第49回 「韓国の中学生から届いた手紙について」, 『実事求是-日韓のトゲ』, 일본어와 더불어 한국을 비롯한 해외로 발신할 의도로 「英語: English · 韓国語: Korean」도 게재했다.

16) 이 내용은 6월 26일 시모조 마사오가 쓴 내용을 인용한 것인데, 「12일 취재에서 알게 되었다」고 하는 내용은 「9일」 보도의 내용인데 「12일 취재에서 알게 되었다」고 하므로 날짜의 오류라고 볼 수 있다.

17) 전계 글, 下條正男, 第49回 「韓国の中学生から届いた手紙について」 참조.

의 『중앙일보』가 『아사히신문』 기사를 받아 「독도의 역사를 왜곡하는 교육을 그만두라고, 시마네현(島根縣)에 편지를 쓴 중학생들」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면서 한국사회에도 알려졌다.¹⁸⁾

아사히신문 기사로 알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첫째, 시마네현이 이 사실을 일본정부에 보고하고, 그리고 한국학생의 비판에 아랑곳하지 않고 각 시정촌(市町村) 교육위원회에 정부나 시마네현의 견해에 따라 교육할 것을 통지했다고 하는 사실이다. 둘째, 편지의 내용은 영어와 한국어로 되어있고,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내용이었다는 것. 셋째, 한국 학생들이 편지를 보낸 이유가 일본의 학습지도요령을 지적하여 “학교에서 초등 중등학생에게 잘못된 역사¹⁹⁾를 가르치고 있는 것을 비판하기 위해서였다는 것. 넷째, 일본의 문부과학성에서 3월 초, 중학교 신학습지도요령 사회과에서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처음으로 명시하여 고시하였다는 것. 다섯째, 시마네현이 한국학생들로부터 비판편지가 왔다는 사실을 6월 25일까지 내각관방, 외무성, 문과성에 보고했다는 것. 또한 시마네현 죽도대책실장 미나미야마 쇼리(南山尙理)는 「죽도는 일본의 고유영토, 영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냉정하고 평화적으로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²⁰⁾라고 하였던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시마네현 죽도대책실²¹⁾이 한국 중학생들의 비판편지를 빌미로 일본정부에 대해 독도 영토정책을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했던 것이다.

『후쿠이신문(福井新聞)』 『류큐신문(琉球新聞)』도 아사히신문의 기사와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2017년 6월 12일 「한국중학생, 역사교육 비판 편지, 3명이 다케시마를 둘러싸고 시마네현 56교에」라고 보도했다. 즉, 「현 다케시마 대책실에 따르면 편지는 각 학교의 “지리 교사”앞으로 한국어와 영어로 편지지 3장에 적혀졌다. 본문에서는 “새 학습 지도 요령으로(다케시마를 일본의 고유 영토로 표기하여 매우 염려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전쟁에 따른 점령한 토지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침략 전쟁과 학살, 위안

18) 상동.

19) 内藤正中·朴炳涉(2007) 『竹島=独島論争』新幹社, pp.1-342. 内藤正中·金柄烈(2007) 『史的檢証竹島·独島』岩波書店, pp.1-259

20) 전계 글, 「竹島教育批判の手紙`5 6中学校に 韓国の中学生名乗る」참조.

21) 죽도대책실은 시모조 마사오가 죽도문제연구회를 조직하여 동북아역사재단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서 시마네현에 설치하도록 요구한 한국영토 독도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부서이다.

부를 동원한 범죄 역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행위입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세요”라고 하고 있다.»²²⁾라고 하는 것이다. 이처럼, 동일한 내용이 산음지방을 넘어 일본 최남단 오키나와에까지 보도된 것은 시마네현의 죽도대책실이 의도적으로 이 사실을 언론에 보도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시마네현의 죽도문제연구회의 좌장격으로서 시마네현의 죽도대책실을 주도하고 있는 시모조(下條正男·拓殖大教授)가 2017년 8월 4일자 「산케이뉴스」에 「【죽도를 생각한다】 한국 중학생이 보낸 ‘일본은 바른 역사를 가르려야 한다고 하는 편지’ ‘순수한 어린이를 정치적 활용’ ‘세뇌교육’」²³⁾라는 제목으로 투고한 것에서 더욱 명확해진다.

시모조는 한국에서 보내온 편지에 대해 「시마네 현내 중학교에 온 편지. 한국 중학교 “역사클럽”에 소속된 3학년 3명으로부터 보내왔다(일부 화상 처리하고 있음)」라는 제목으로 「5월 중순 한국 전남의 중학생 3명이 보낸 편지가 시마네현 내 중학교 56개 사회과 선생님 앞에 도착했다. 편지에는 신 『학습지도요령』과 관련하여, “선생님은 독도(다케시마 한국 측 호칭)와 관련되는 역사적 사실을 잘 모르는 일본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세요”라고 했다.»²⁴⁾라는 것이었다.

이상의 내용으로 보면 한국 중학생들이 일본에 편지를 보낸 날짜는 「5월 중순」이었고, 실제로 언론에 보도가 된 것은 「6월 9일」이었다. 이렇게 보도에 시차가 생긴 이유는 56개 중학교는 편지를 받고 시마네현에 보고했지만, 현이 이를 비공개로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죽도문제연구회가 뒤늦게 이를 언론에 보도하여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시마네현 56개 중학교에서는 편지를 받고 이를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대하지 않았다. 그런데, 죽도문제연구회의 좌장격인 시모조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이다. 그 결과 시마네현으로 하여금 제4기 죽도문제연구회를 설립하도록 했고, 또한 일본정부에 대해서는 죽도문제연구회의 위상을 높이고 정부를 압박하는 소재로 삼았다. 그리고 시마네현의 56개 중학교에 대해서도 죽도문제연구회가 날조한 일본영토론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교육할 것을 하달함으로써 존재감을 과시했다.

22) 『福井新聞』, 『琉球新聞』 2017년 6월 12일.

23) 전개 글, 下條正男·拓殖大教授, 「【竹島を考える】 韓国中学生が送りつけた ‘日本は正しい歴史を教えよ’の手紙 透けて見える ‘子供の政治利用’ ‘教育の洗脳’」 참조.

24) 상동.

시모조는 「한국측 죽도교육 실태」에 관해 「12일, 아사히신문 기자가 한국 현지의 함평중학교를 방문하여 중학생들과 그 지도교사 김영배 선생님을 취재함으로써 한국측의 죽도교육의 실태가 밝혀졌다.」²⁵⁾라고 했다. 그 내용으로는 「아사히신문 보도(6월 14일자)에서 중학생들은 "올해 3월경 일본의 초 중학교 학습 지도 요령 개정안에 독도가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처음으로 명시되었다는 사실을 접하고 『잘못된 역사를 일본 중학생들이 공부한다』고 하는 위기감을 갖고 역사 지리의 교사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떠올랐다"라고 말했다. 동석했던 김영배 선생님도 "편지의 내용은 학생들이 조사한 결과"로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 내용과 다르다"라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는데 그것은 반드시 사실이 아니었다.」²⁶⁾라고 했다. 시모조는 학생들이 학교 교육과 상관없이 스스로 편지를 보냈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학교 선생님이 이들 학생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한다.

4. 죽도문제연구회 좌장 시모조의 견해에 대해

(1) 중학생 편지, 제4기죽도문제연구회 발족의 지렛대로 이용

시모조는 2017년 6월 26일 「한국 중학생으로부터 온 편지에 관해서」를 죽도문제연구회 홈페이지에 올렸다. 시모조 자신이 한국 중학생들이 보내온 편지를 직접 본 것에 대해 「내(시모조)가 실물의 복사를 본 것은 6월 10일 연구회의 준비 때문에 시마네현의 다케시마 자료실을 방문했을 때이다. 중학생의 편지에는 한국 측이 "독도 교육"의 현장에서 가르치는 "역사 인식"이 그대로 새겨졌으며 한국 측 독도 교육의 실태를 잘 알 수 있는 자료였다. 그래서 다음날의 연구회에서 검증하기로 하고 추가 자료로서 받았다.」²⁷⁾라고 하고 있다. 편지의 실물을 본 것은 8월 10일이지만, 연구회에서 한국의 독도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추가 자료를 받은 것은 「다음날」인 8월 11일 이었다. 하지만 한국에서 편지가 왔다는 사실은 이미 시모조는 6월 9일의 신문 보도를 보았고, 게다가 「5월 중순」²⁸⁾에 한국에서 보내왔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25) 상동.

26) 상동.

27) 상동.

그리고 여기서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은 당시 제4기 죽도문제연구회의 발족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제4기 죽도문제연구회가 발족하게 된 계기가 바로 한국 중학생들로부터 편지가 왔다는 소식을 접했고, 또한 한국 중학생들이 독도교육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이를 빌미로 좌장격인 시모조가 연구회 발족을 시마네현에 요구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시마네 현은 6월 11일 제4기째 "시마네 현 다케시마 문제 연구회²⁹⁾"를 발족시켰던 것이다.³⁰⁾

(2) 죽도문제연구회의 한국 독도교육에 대한 왜곡된 인식

독도는 역사적으로 보나 국제법적으로 보나 한국의 고유영토이다. 독도는 일본의 패전과 더불어 한국이 독립되면서 연합국의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을 바탕으로 연합국이 결정하여 한국영토가 되었다.³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과거 일본제국주의가 침략했던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학교교육에서도 독도 영토화 교육을 초,중,고교 전 과정에 의무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의 영토침략 행위에 대응하여 한국에서도 학교에서 독도영토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있다. 독도교육을 받은 한국 중학생들이 이를 실천하는 방법으로 일본 학생들의 잘못된 교육을 바로잡기 위해 시마네현 56개 중학교 지리교사 앞에 편지를 보냈던 것이다.

죽도문제연구회 좌장격인 시모조는 이에 대해, 「한국에서는 최근 청소년을 이용하여 국내외 한국 측의 "역사인식"를 발신하고 있으며 이 편지도 그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 편지에 대해서 보도했던 일본의 여러 언론들은 한국 측의 상황을 어떻게 인식했을까. 이 편지는 아이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그 태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³²⁾라고 하여 한국에서 학생들을 정

28) 상동.

29) 일본에서는 "다케시마문제연구회" 라고 하지만, 다케시마는 일본영토를 인정하는 호칭이므로 본고에서는 "죽도문제연구회" 라는 호칭을 사용하기로 한다.

30) 상동.

31) SCAPIN 677호, 대일평화조약의 영국과 미국, 공동 초안의 작성과정, 1951년 8월 일본 해상보안청이 발행한 「일본영역참고도」, 1952년 6월 마이니치신문사 발행의 「일본영역도」를 보면 확인된다. 동북아역사재단편(2009) 『일본국회 독도관련 기록모음집(1부:1948-1976)』 동북아역사재단, pp.45-196. 최장근(2014) 『일본의회의사록이 인정하는 다케시마가 아닌 한국영토 독도』 제이앤씨, p.15. 毎日新聞社編(1952) 『対日平和条約』 毎日新聞社刊. 삽입지도.

32) 전계 글, 下條正男, 第49回 「韓国の中學生から届いた手紙について」 참조.

치에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초, 중,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모범적인 한국국민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한국 중학생들이 학교에서의 영토교육을 받아서 독도가 고유영토라고 인식하고, 자국의 영토를 수호하는 차원에서 독도를 침탈하려고 하는 일본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편지를 보낸 것이다. 이것을 학생들을 정치에 이용한다고 하는 시모조의 주장은 논리적 타당하지 않다.

일본은 한국 영토인 독도에 대해 학교 교육을 비롯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침략적 도발을 하고 있다. 독도 교육도 그 한 방편이다. 그래서 한국이 주권국가로서 영토를 지키려면 일본의 독도 도발을 막아야한다. 그런데 시모조는 학생들의 편지에 대해 「한국 측이 다케시마가 한국영토라고 한다면, 아이들을 이용하지 말고 외교 루트를 통해서 한국 정부가 주장하고 외교의 장에서 결판내야 한다. 그것을 한국 측에서는 "한일 간에는 영토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국책연구기관 "동북아역사재단"을 비롯하여 한국정부의 지원을 받고 활동하는 VANK 등에서는 청소년을 이용하여 해외의 프로파간다를 장려, 추진하고 있다」³³⁾라고 하여 한국정부가 학생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시모조는 영토문제 해결은 외교적 행위로만 하는 것이라는 논리적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시모조의 주장은 논리적 정합성이 전혀 없는 주관적이고 왜곡된 견해를 반복하고 있다. 시모조는 독도를 학문적이고 객관성으로 영유권을 연구하지 않고 영토 내셔널리즘에 입각하여 일방적으로 영유권만을 주장하기 때문에 설득력 없는 주장만 반복한다.

영토를 잃으면 국가는 존재할 수 없다. 영토수호의 주체는 바로 국민이다. 따라서 교사의 역할은 학생들에게 영토수호 방법에 관해서도 지도해야한다. 그런데, 시모조는 「이번 "독도 교육 비판의 편지" 소동에는 속편이 있었다. 6월 10일 한국 『중앙일보』 김호 기자가 함평 중학교를 찾아 3명의 학생들과 교문인 김영배선생(43)을 인터뷰했을 때의 상황을 영상으로 공개하고 있다. 그 중에서 김영배 선생님은 "지금도 하고 있는 작업 중 하나가 편지를 일본에 있는 선생님들에게 보내는 작업과 일본에 있는 우리 중학생의 친구, 일본의 중학생 친구에게 보내는 영상 형식의 편지로 하는 UCC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여 (김영배 교사가) 이번 소동의 중심적 역할을 했다.」³⁴⁾ 「함평 중학교

33) 전계 글, 下條正男, 第49回 「韓国の中學生から届いた手紙について」 참조.

34) 상동

홈페이지에 따르면 6월 12일 이 학교의 도서관에서 독도의용수비대 기념사업회가 1학년을 대상으로 "독도 의용수비대 교육"을 행했다.³⁵⁾라고 하여 교사가 학생들에게 독도교육을 시킨다고 비판하고 있다.

시모조 자신은 시마네현을 선동하여 죽도문제연구회를 만들고 좌장이 되어 죽도교재를 만들어서 일선 학교에 배포하고 있으며, 제4기 죽도문제연구회의 수행업무에도 독도교육을 주로 행한다고 되어있다. 시모조가 이런 비논리적인 사고를 갖게 된 것은 바로 죽도가 일본영토라는 내셔널리즘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것 자체를 악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곡된 사고를 가진 자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학문을 연구하는 대학교수의 신분에는 맞지 않다.

(3) 자신의 공적을 과장하기 위해 일본정부의 무능성 비판

시모조는 일본정부에 대해 한국은 많은 예산으로 독도수호에 나서고 있는데 독도 수호에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국 학생들이 편지를 보낸다고 비판했다. 시모조는 독도가 한국영토가 된 경위³⁶⁾에 대해서도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독도에 대한 일본정부의 소극적인 자세를 이해하지 못한다. 독도가 일본영토라면 일본정부가 과거부터 적극적으로 영토화정책을 추진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영토로 결정되지 않고 오히려 연합국이 한국영토로 인정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세계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해야할 일본정부 입장에서는 독도정책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³⁷⁾ 그런데 시모조는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왜곡된 내셔널리즘적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본정부가 영토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있다.

시모조는 한국정부의 독도 교육정책에 대해, 「이는 2011년 2월 한국 문화교육부가 "초·중·고등학교 독도교육 내용체계"를 공개한 이래 한국에서는 독도교육이 장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일보』 김호 기자의 질문에 답한 중학생 한명은 "과거에 체험 학습으로 독도에 가서 독도 의용수비대원들과 얘기도 해서 독도 문제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함평

35) 상동

36) 행방 이후 한일관계 속의 독도의 영유권을 둘러싼 한일 양국정부간의 외교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시모조의 주장들을 보면, 독도의 역사를 날조하는 행위에 치중하고 있다.

37) 대일평화조약 비준 국회에서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1951년 8월에 해상보안청이 발행한 「일본영역참고도」가 국회의원들에게 배포되었다는 사실이 일본국회의사록에 기록되어있다.

중학교인 전라남도 교육청이 2015년부터 예산을 확보하고 독도에 수업자료 공급, 독도의 역사 문화 탐방, 독도 수업 실천 연구회 등 독도교육 선도교육 지원청으로써 역할을 해왔다」³⁸⁾고 했다. 즉 시모조는 일본정부가 예산을 확보하지 않지만, 한국정부는 예산을 확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독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일본정부를 비판했다.

반면, 일본정부의 죽도 교육에 대해,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번 3월 31일, 2017년도판 『학습지도요령』에 처음으로 독도를 기재하고 공시했다. 하지만 일본에는 한국의 "동북아역사재단"이 개발한 것과 같은 독도 교육을 위한 부교재도 없고, 학습 지도 방안도 준비되지 않았다. 이 상황에서 일본의 선생님은 무엇을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까. 한국의 중학생이 보낸 "독도 교육 비판의 편지"에 대해서도 일본의 선생님이 그 잘못을 지적할 때 얼마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을까. 어설픈 부분이 많다.」³⁹⁾라고 했다. 즉, 일본정부가 한국처럼 독도교육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 독도 교육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중학생들이 비판편지를 보내왔다고 지적했다. 사실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독도에 관해 전전의 역사성과 전후의 외교과정을 보더라도 일본정부는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해왔기 때문에 왜곡된 독도교육을 일부러 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런데 시모조는 시마네현에 죽도문제연구회를 만들도록 선동하고 이들 단체가 일본정부를 압박하여 결국 일본정부가 여기에 편승됨으로써 한일관계가 극단적인 상황까지 치닫게 되고, 미래 한일 양국관계를 악화시키는 부정적인 요인을 만들었다. 그 장본인이 바로 내셔널리즘적 사고를 갖고 독도 영유권을 날조하고 있는 시모조 마사오라는 사실을 알아야한다.

시모조는 시마네현에서 죽도 영유권을 선동하는 자신의 공적을 높이기 위해 일본정부를 늘 공격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전후 독도문제에 대해 대일평화조약과 평화선 등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인식이 그다지 크지 않았다. 그런데 시모조는 자신의 무지에 대한 반성은 없고, 「일본 정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려는 것일까. 독도 문제가 발생한지 반세기가 지나도 일본 정부는 아직도 실효적인 전략도 전술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⁴⁰⁾라고 일본정부의 반세기 동안의 독도정책을 비판하고

38) 전계 글, 下條正男, 第49回 「韓国の中學生から届いた手紙について」 참조.

39) 상동.

40) 상동.

있다.

한편 자신의 공적에 대해서는 "시마네 현 다케시마 문제 연구회"는 2014년 3월 『다케시마문제 100문항 100답』을 간행했고 다케시마 문제의 전모를 밝혔다. 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는 『"다케시마 문제 100문항 100답" 비판』⁴¹⁾을 출판하고 반론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경상북도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다케시마 문제 100문항 100답" 비판』은 삭제되고 지금은 출판한 흔적조차 사라졌다. 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는 『다케시마 문제 100문항 100답』을 논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⁴²⁾라고 했다.

시모조의 이런 주장은 거짓으로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경상북도는 시모조 일행이 주장하고 있는 『죽도문제100문100답』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여 비논리성을 지적했다. 경상북도가 그 비판서를 홈페이지에 올리지 않는다고 해서 "항복을 선언했다"고 주장하는 시모조의 논리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

시모조는 경상북도가 홈페이지에서 『죽도문제100문100답』 비판서를 게재하지 않았다고 해서 한국은 독도가 한국영토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계속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유는 일본정부가 죽도문제연구회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비논리를 펴고 있다. 즉, 「한국 측이 일본을 비판하는 것은 시마네 현 다케시마 문제 연구회 보고서를 받고 외무성이 작성한 소책자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는 10포인트』⁴³⁾에 약점을 찾아냈기 때문이다. 시마네 현의 다케시마 문제 연구회와 달리 외무성에는 반론하는 기능이 없다. 그것을 간파하고 한국 측에서는 시마네 현 다케시마 문제 연구회에 잘못을 지적하자 반론하지 않는 외무부의 견해를 표적으로 삼는 것이다. 이 구조적 결함⁴⁴⁾을 극복하지 않는 한 독도 문제의 해결은 어렵다.⁴⁵⁾라고 했다.

다시 말하면, 시마네현의 죽도문제연구회는 한국의 잘못된 논리를 잘 비판하였지만, 일본외무성은 한국의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도 아무런 비판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계속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한다는 것이다. 시모조의

41) 경상북도사료연구회편(2014) 『竹島問題100問100答에 대한 비판』 경상북도, pp.1-353.

42) 전계 글, 下條正男, 第49回 「韓国の中學生から届いた手紙について」 참조.

43) 外務省(2008) 「竹島問題」, 「パンフレット '竹島問題を理解するための10のポイント」, 外務성 홈페이지 참조

44) 川上健三(1966) 『竹島の歴史地理学的研究』古今書院, pp.1-291. 高野雄一(1962) 『日本の領土』東京大学出版会, pp.1-108. 田村清三郎(1996) 『島根県竹島の新研究』復刻版, 島根県総務部総務課 pp.116-160.

45) 전계 글, 下條正男, 第49回 「韓国の中學生から届いた手紙について」 참조.

비논리적 사고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 한국 측에서는 죽도문제연구회의 주장은 인정하고, 일본의무성의 주장은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구분하지 않는다. 죽도문제연구회는 시모조를 필두로 독도의 영유권을 날조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한다.⁴⁶⁾

시모조는 일본의 매스컴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있다. 즉 「지금 언론들이 할 일은 현상을 보도하는 것은 아니다. 한일은 왜 독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가? 그 폐해가 되고 있는 한일 양측의 고질병의 권원을 잘라내는 것이다.»⁴⁷⁾ 라고 하여 한국 중학생들이 보낸 일본 중학교에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비판하는 편지에 대해 일본의 언론사들이 일본영토적 입장에서 보도하지 않고 사실을 그대로 방송하여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고 비판한 것이다.

또한 시모조 자신의 선동으로 시마네현이 죽도문제연구회를 발족할 당시 일본정부는 오히려 죽도를 지키려고 하는 단체에 대해 방해했다고 하여 실제의 적은 일본 국내에 있다고 비판했다. 즉, 「시마네 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그것을 견제하고 조례의 통과를 저지하는 것은 일본정부였다. 이 자세는 민주당 정권이 되어도 변하지 않았다. 독도 문제는 한일 문제라기보다는 한국과 일본의 국내 문제의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⁴⁸⁾라는 것이다. 시모조가 이런 비판을 하는 이유는 딴 곳에 있다. 즉, 「제4기 시마네 현 다케시마 문제 연구회에서는 지금까지 한국 측의 독도 연구를 검증하고 역사적 사실을 밝힌다. 시마네현 내에 한정하지 않고 다케시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제각각 할 수 있는 범위와 분야에서 참가해 주면 고맙겠다. 왜냐하면 다케시마 문제는 해결해야 할 한일 간의 치부이기도 하기 때문이다.»⁴⁹⁾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시모조는 자신이 일본정부의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도문제연구회를 설치하여 당당하게 큰 역할을 해내었다고 자신의 공적⁵⁰⁾을 내세우고 싶은 것이다.

시모조는 독도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궤변을 펴고 있다. 즉 「이번 한국 중학생들이 보낸 편지에는 다케시마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가능성이 숨어

46) 상동.

47) 상동.

48) 상동.

49) 상동.

50) 下條正男(2004)『竹島は日韓どちらのものか』文春親書377. 下條正(2005)『‘竹島’ その歴史と領土問題』竹島・北方領土返還要求運動島根県民会議.

있다. 함평 중학교 3명의 학생들은 한국의 "중앙일보" 김호 기자에게 "일본의 중학생들과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어른의 훈수로 말하는 한일관계가 아니라 독도 문제를 공동 과제로서 한국과 일본의 중학생들이 이야기하는 시간도 필요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 이야기의 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편지를 보낸 함평 중학교 3학년 3명과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일본의 중학생 제군에게도 독도 문제에 대해서 연구해주길 바란다.»⁵¹⁾라고 하여 독도문제의 해결 방법은 독도가 일본영토임을 분명하기 때문에 일본의 미래 세대들 즉 일본의 중학생들이 「죽도」 교육을 제대로 하면 미래 세대가 독도를 일본영토로 해결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시모조의 독도 영유권 인식은 일본이 1905년 새로운 영토로서 독도를 편입 조치하여 국제법적으로 일본영토가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그 이전의 전근대적인 독도의 역사적 권원에 관해서도 막부로부터 울릉도 도해면허를 취득하여 70여 년간 독도를 거쳐 울릉도에 도해하면서 독도의 영토적 지위를 확보했는데 한국이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명확한 증거가 하나도 없으면서 1952년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대일평화조약이 체결된 이후 평화선이라는 것을 그어서 독도를 점령했다고 하는 사실을 날조하여 인식하고 있다.⁵²⁾

독도가 한국영토로서 근거가 없다고 하는 것은 모두 사실이 아니고 일본측 사료나 한국측 사료에서 모두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⁵³⁾ 이처럼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시모조의 주장은 내셔널리즘적에 의한 왜곡된 사고방식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5. 한국 중학생의 편지에 대한 소셜미디어의 반응

한국 중학생들이 보낸 일본의 독도교육 비판 편지를 둘러싸고 「2찬네루」⁵⁴⁾에서도 그 열기는 뜨겁다. 「2017년 8월 4일」자 「산케이 뉴스」에 투

51) 상동.

52) 이러한 인식은 죽도문제연구회를 비롯해서 일본외무성의 인식이고, 동시에 대체로 일본영토론자들의 인식이다.

53) 内藤正中·朴炳涉(2007)『竹島=独島論争』新幹社. 内藤正中·金柄烈(2007)『史的檢証竹島·独島』岩波書店. 毎日新聞社編(1952)『対日平和条約』毎日新聞社刊. 삼입지도.

54) 한일관계와 관련되는 소재를 주제로 다루어지는 「2ちゃんねる」라는 소셜미디어가 있다.

고한 시모조 마사오의 견해와 동일한 내용에다가 「편지 내용」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추가되었다. 본문을 소재목으로 나누어 논술하고 마지막에 「끝」이라고 한 것을 보면 시모조가 「2찬네루」에 스스로 글을 올렸음을 알 수 있다.⁵⁵⁾ 「2찬네루」에서 한국 중학생이 보낸 편지에 대한 논란은 결국 시모조가 글을 올려 선동한 것이다. 시모조는 외무성은 독도문제 해결을 위태롭게 하는 행동을 하고 실제도 독도문제를 유리하게 활동하는 단체는 자신이 좌장으로 있는 죽도문제연구회라고 일본의 여론을 조장하고 있다.⁵⁶⁾

한국 중학생이 보낸 편지는 「앗토 니프티고고로그」⁵⁷⁾에서도 논란은 계속된다. 여기에서도 「독도 문제의 제일인자, 시모조 마사오 교수가 주장했다」라고 하여 시모조 마사오가 등장한다. 시모조 마사오는 이번 한국 중학생이 시마네현에 독도영유권을 비판하는 편지를 보낸 것은 「불에 날아드는 여름 벌레 상태」라고 하여 「자살행위」라고 주장한다.

이 블로그에서는 시모조의 주장을 인용하여 「한국의 독도 교육은 사실이 아닌 위험한(danger) 세뇌 교육이고, 일본의 독도 교육은 매우 객관적」이라고 하여 시마네현의 초중학생들은 매우 논리적으로 독도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논리는 시마네현의 학생에게 대적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한국 중학생들이 「독도의 역사를 왜곡하는 교육을 비판, 시마네 현의 중학교에 편지 쓴 한국의 중학생(2017년 06월 12일)」이라는 주제로 편지를 보낸 내용을 소재하면서 한국학생들이 편지를 보낸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⁵⁸⁾

이 블로그는 한국 중학생들이 비판 편지를 보낸 이유에 대해 한국 학교교육에서 왜곡된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고, 2005년 시마네현이 「죽도의 날」을 제정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시모조는 한국 중학생들이 일본의 독도인식과 역사인식을 비판한 것에 대해 학생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일 생각은 없고 이 학생들을 어떻게 상대하여 공격할까에 대해서만 생각한다.

55) 「2찬네루(채널)」에서의 네티즌의 반응에 관해서는 향후 준비하는 필자의 논문에서 구체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56) 상동.

57) 「アット・ニフティコログ」는 「접속자수 5395321명」으로 「テレビにだまされないぞⅡ」라는 주제로 「テレビの情報番組が変だぞ!」と思い始め 「じっくり観てるとツコミどころ満載 °無責任コメントに怒り爆発 °それを記録しておくワウ」°所詮 `井戸端会議`ハルです^^;」라는 취지의 SNS이다. 「<http://dametv2.cocolog-nifty.com/blog/2017/06/post-a3c8.html>」(검색일2017.09.12)

58) 상동.

이 블로그에도 「한국 차기 대통령, 반일 입장이라면 다루기 쉬운 일본 우위의 역설 이론, 시모조 마사오·타쿠쇼쿠대 교수 2017.3.24」라고 하여 시모조가 등장한다.⁵⁹⁾ 이 블로그의 내용은 시모조의 주장인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대통령 선거 이전이었던 3월 24일 시모조는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분명히 위안부문제와 독도문제에 대해 반일적인 자세를 취하기 때문에 한국이 먼저 액션을 취하면 일본은 대응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일본정부는 공세를 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주장했다.

둘째, 한국정부 입장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일본정부가 아니라 “사소한 무기로 상대를 쓰러뜨릴 수 있다”라고 하여 바로 시마네현이라는 주장이다.

셋째, 한일 양국정부가 서로 감정적으로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을 통제할 위치에 있는 것은 시마네현이다. 현은 독도문제와 외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즐기면서 한국을 상대하면 된다”라는 주장이다.

요컨대, 이번 한국 중학생이 일본의 독도교육을 비판하는 편지를 시마네현 56개 중학교에 보낸 것이 일본의 언론과 소셜미디어 사회에서는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런데 그 논란의 중심에는 시모조 마사오가 선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논란이 되는 내용들은 모두 시모조의 왜곡된 사고에 의해 조작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6. 맺으면서

본 연구는 한국 함평중학교 ‘역사동아리’ 3학년 학생 3명이 시마네현 56개 중학교에 보낸 편지를 둘러싼 일본 국내의 동향을 분석하여 죽도문제연구회의 독도 영유권 날조와 선동 방식에 관해서 고찰한 연구이다. 본문에서 논증한 내

59) 「下條正男·拓殖大教授 2017.03.24.」 「実は、下條教授は、今年の竹島の日ミーティングで下記の話をしていましたdownwardleft(抜粋)」라는 것처럼 시모조의 주장은 비논리의 극치이다. 평화적인 영토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은 없고 영토 도발을 위한 발언뿐이다.

「접속자수 5395321명」으로 「テレビにだまされないぞ!!」라는 주제로「テレビの情報番組が変だぞ!」と思い始め、じっくり観てるとツッコみどころ満載。無責任コメントに怒り爆発。それを記録しておくワウ。所詮、井戸端会議レベルです^^;」라는 취지의 SNS이다.

「<http://dametv2.cocolog-nifty.com/blog/2017/06/post-a3c8.html>」(검색일2017.09.12.)

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시마네현은 6월 8일 시모조 마사오를 좌장으로 해서 제4기 죽도문제 연구회를 발족시켰다. 죽도문제연구회는 제1기부터 줄곧 시모조가 좌장을 맡고 있다. 그것은 시모조가 죽도문제연구회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4기 죽도문제연구회는 한국 중학생들이 일본의 죽도교육을 비판하는 편지를 시마네현 56중학교에 보낸 시기와 일치한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시모조가 한국 중학생들의 비판편지를 이용하여 외무성의 무성함을 질타하면서 제4기 죽도문제연구회를 발족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로, 일본 언론은 8월 9일 처음으로 한국 중학생들이 보낸 「죽도 교육 비판 편지」 내용을 보도했다. 한국 중학생들이 시마네현 56개 중학교에 편지를 보낸 시기는 「5월 중순」이었다. 그런데 시마네현은 그후 계속 이를 비공개로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5월 9일 언론에 공개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6월 8일 제4기 죽도문제연구회가 발족되어 그 비공개 회의에서 언론에 공개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이다.

셋째로, 사실상 죽도문제연구회는 시모조가 주도하는 단체이다. 이번에 한국 중학생들이 일본 독도 영유권 교육을 비판하는 편지를 56개 시마네현 중학교에 보내었을 때 거의 한 달 동안 비공개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공개하게 된 것은 바로 시모조의 의도에 의한 것이다. 시모조는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 학생들이 비판 편지를 보낸 것은 어른인 교사가 학생들을 정치에 이용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일본정부에 대해서는 정부가 독도영토정책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비전문가, 비전문기관이라는 것이다. 또한 외무성 홈페이지의 ‘죽도=일본영토’ 논리는 한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는 허점투성이라고 하여 일본의 여러 언론에 한국정부와 일본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기고했다.

넷째로, 한국 중학생들이 보내온 독도교육 비판편지는 소셜미디어에서도 한국은 어른들이 학생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함과 동시에 한국정부가 학생들에게 왜곡된 독도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소셜미디어에서 한국학생들의 편지를 비판하는 논리를 제공한 장본인도 바로 시모조 마사오였다는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한국 중학생들이 시마네현 56개 중학교에 보낸 일본의 왜곡된 독도교육을 비판하는 편지는 사실상 시마네현의 비공개로 사회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없었다. 그런데 시모조가 이를 이용하여 자신과 죽도문제연구회의

업적을 과장하기 위해 이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였고, 시모조 본인도 적극적으로 언론에 참여하여 선동적으로 일본정부가 독도정책에 오류를 범했다는 것과 한국정부가 학생들에게 왜곡된 독도 교육을 실행하고 동시에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비판했다.

【참고문헌】

- 경상북도사료연구회편(2014) 『竹島問題100問100答에 대한 비판』 경상북도, pp. 1-353.
- 경상북도독도연구기관통합협의체편(2016) 「시마네현 죽도문제연구회의 독도영유권 조작논리」 (2010.12.28~2015.10.09.), pp.1-170.
- 경상북도 독도연구기관통합협의체(2016) 『일본의 영토침략에 대응하기 위한 독도의 고유영토론』 제이앤씨, pp.253-464.
- 동북아역사재단편(2009) 『일본국회 독도관련 기록모음집(1부:1948-1976)』 동북아역사재단, pp. 45-196.
- 송병기(1999) 『울릉도와 독도』 단국대학교출판부, 참조.
- 송병기편(2004) 『독도영유권자료선』 한림대학교아시아문화연구소 참조.
- 신용하(2011) 『독도영유권에 대한 일본주장의 비판』 서울대학교출판부, pp. 249-312.
- 최장근(2005) 『일본의 영토』 백산자료원, pp.41-42.
- _____ (2014) 『일본의회의사록이 인정하는 다케시마가 아닌 한국영토 독도』 제이앤씨, p.15.
- 外務省(2008) 「竹島問題」, 「パンフレット‘竹島問題を理解するための10のポイント’」 참조.
- 川上健三(1966) 『竹島の歴史地理学的研究』古今書院, pp.1-291.
- 下条正男(2004) 『竹島は日韓どちらのものか』文春親書377 참조.
- _____ (2005) 『‘竹島’ その歴史と領土問題』竹島・北方領土返還要求運動島根県民会議 참조.
- 高野雄一(1962) 『日本の領土』東京大学出版会, pp.1-108.
- 田村清三郎(1996) 『島根県竹島の新研究』復刻板, 島根県総務部総務課 pp.116-160.
- 内藤正中·朴炳涉(2007) 『竹島=独島論争』新幹社 참조.
- 内藤正中·金柄烈(2007) 『史的検証竹島·独島』岩波書店 참조.
- 毎日新聞社編(1952) 『対日平和条約』毎日新聞社刊. 삼입지도.
- 竹島問題研究会(島根県) : <http://www.pref.shimane.lg.jp/soumu/web-takeshima/>(검색일2017.09.03).
- 竹島問題(일본외무성) : <http://www.mofa.go.jp/mofaj/area/takeshima/>(검색일2017.09.03).

논문 투고 일자 : 2017. 10. 09.

논문 심사 일자 : 2017. 10. 26.

게재 확정 일자 : 2017. 10. 27.

 <要旨>

2017年、竹島問題研究会の独島領有権の捏造と煽動の方式
 -韓国・咸平中学校「歴史クラブ」の中学校3学年が送った手紙を中心に-

崔長根

竹島問題研究会は、独島が日本領土であるという論理を捏造し、日本国内外に向けて扇動活動を行っているが、最近、韓国の中学生が島根県にある56校の市立中学校に手紙を送った。これらの中学生は、島根県の小・中学校では歪曲された独島教育が行われていると批判した。当初、島根県は韓国の中学生からの手紙を公開しなかった。しかし、下条正男はこれを公開して日本政府の独島政策を批判し、また、第4期竹島問題研究会を発足させることに利用した。下条自身は、日本政府が行うことができない「竹島=日本の領土」教育を竹島問題研究所が行ったと自らの業績を誇張した。さらに独島政策に消極的な日本政府を批判すると同時に自らの業績を宣伝する寄稿文を複数のメディアに掲載した。今回、韓国の中学生が送った竹島教育を批判する手紙は下条に利用されたという側面もあるが、独島が韓国領土であるという韓国の立場を日本に知らせる重要な契機となった。

The Instigation and Fabrication of the Sovereignty of Dokdo by the
 Takeshima Issue Study Group in 2017

Choi, Jang-Keun

The Takeshima Issue Study Group is fabricating the logic that Dokdo is Japanese territory. Also, Dokdo is being invaded as Japanese territory. This time, middle school students in Korea sent letters to 56 middle schools in Shimane Prefecture. These middle school students criticized the distorted Dokdo education of Shimane Prefecture. Initially, Shimane Prefecture did not disclose the letters of Korean students. However, Masao Shimozo made it public, criticizing the Japanese government's Dokdo policy.

Then, the 4th Takeshima Issue Study Group was convened. Simojo praised his achievements. He also exaggerated that he had been involved in developing Takeshima territory education for the Shimane students. Shimozo posted articles in various media. This time Shimozo used letters from Korean students. However, Japan became aware of the reality of Dokdo education in Korea.